

2021년 4월 20일은  
제41회  
<장애인의 날>입니다.



[장애인의 날 기념 신문]  
서로 다른 우리,  
함께 자라는 우리



우덕초-2021-029

우)56335 부안군 상서면 부안로 1971 교무실 063)582-5011 FAX 063)583-4594

## 차별의 발견



2002년 12월에서 2005년 5월까지 **연주황**, 그리고 현재 **살구색**, 색깔 이름이 두 번 바뀐 색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1948년 탄생한 세계 인권 선언은 모든 사람들이 태어나면서 갖는 최소한의 권리에 대한 선언으로 그 권리들의 대전제를 **차별금지**로 두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그 밖의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기타의 지위에 따른 구별 없이 이 선언에 규정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차별금지 항목들을 열거하고 있는 1948년 세계 인권선언에는 “장애”라는 항목은 빠져있습니다. 2001년 대한민국에서는 세계인권선언에는 없는 장애를 포함하여 18개의 차별금지 항목을 열거하였습니다. 새롭게 추가된 18개의 항목들은 없었던 차별이 새롭게 나타났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이런 변화는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차별의 항목들이 점차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001년 11월, 색깔 이름에 문제를 제기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크레파스 색깔 중에 특정색을 ‘살색’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인종차별이다.” 이런 주장이 받아들여져 살색은 ‘연주황’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2004년 8월 다시 ‘연주황’이란 색깔의 이름에 문제를 제기한 여섯 명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연주황’은 한자표기여서 그 뜻을 쉽게 알 수 없다. 이는 어린이들에게 또 다른 차별이자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차별의 발견을 통해 살색은 연주황, 연주황은 현재 ‘살구색’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변의 차별은 이제 모두 사라졌을까요? 어쩌면 아직도 우리 주변에서 드러나고 있지 않은 차별들이 존재하고 있을 지도 모릅니다. ♥그럼 우리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친구들과 함께 꼭꼭 숨어있는 차별을 찾아나서 볼까요?

<참고> EBS 지식 e채널 '차별의 발견'에서 발췌, 각색

4월 20일은....

4월 20일은 제41회 장애인의 날

‘장애인’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가지고 있어서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사람들과 사회의 관심이 보다 많이 필요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장애인의 날’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전쟁으로 인하여 아주 많은 지체장애인, 정신 장애인들이 생겼고, 그때부터 장애인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유엔에서 1981년을 ‘세계 장애인의 해’로 선포하면서 장애인에 대한 다양한 복지 정책을 만들 분위기를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4월 20일을 법정 기념일인 ‘장애인의 날’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날은 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한 번 더 장애인에 대해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 만든 날입니다.



후천성 장애인의 수가 선천성 장애인의 수보다 10배 많다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장애를 존중하는 마음!!  
나와 우리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 제41회 장애인의 날 기념 행사

### ♣ 장애인식개선교육


- 손상예방교육(후천적장애발생예방교육)
  - 대상 : 1,2,5,6학년
  - 날짜 : 4월 13일(화) 2~3교시
- 장애이해 및 장애발생예방교육
  - 대상 : 3,4학년
  - 날짜 : 4월 20일(화) 1교시

### ♣ 봄체험주간 장애이해퀴즈 응모


- 장애이해 OX 퀴즈 : 1~3학년
- 장애이해 낱말 퀴즈 : 4~6학년
- ♣ 신문 뒷면에 있는 장애인의 날 기념 퀴즈를 풀어서 **4월 23일(금)까지 4학년 교실로 제출**해주세요!!
- ♣ 퀴즈에 응모한 학생 중 정답자를 추첨하여 상품을 드려요.

# 장애인 차별 금지법


★ 2008년 4월 11일 '장애인차별금지법'이 발효되었습니다. 모두가 지켜야 할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중요한 몇 가지를 알아봅시다.



**교육(제13조, 14조)**  
장애인의 입학을 거부하거나 강요할 수 없다. 또한 모든 교육 활동에 있어 장애 학생의 참여를 제한·거부할 수 없으며 교육책임자는 교육활동에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이동 및 교통수단(제19조)**  
이동 및 교통수단 이용에 있어 장애인이나 보조견 및 장애인 보조기구 등의 출입 및 사용을 거부해서는 안 되며,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괴롭힘의 금지(제32조)**  
모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권리를 가지며,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하거나 학대 및 금전적 착취를 해서는 안 된다.





우리 주변에는 장애인들의 불편함을 개선해주기 위한 **장애인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있나요? 장애인 시설과 이에 알맞은 기호를 선으로 이어봅시다.

엘리베이터

장애인용 화장실

경사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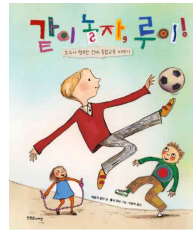





## 장애이해 OX 퀴즈 : 1~3학년용

( )학년 1반 이름 ( )

번호	도전 문제!	O, X
1	모든 장애는 유전이 된다.	
2	장애인은 직업을 가질 수 없다.	
3	사고나 질병으로 장애를 가지게 되는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진 사람의 수보다 많다.	
4	장애인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장애우라고 부르는 것이 옳다.	
5	장애인을 동정심을 가지고 대해야 한다.	
6	지적장애인은 자기가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모른다.	
7	뇌성마비 장애인은 지능이 낮다.	
8	환경이 바뀌면 장애는 사라질 수 있다.	
9	길에서 장애인을 만나면 무조건 도와주기 보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하고 먼저 물어본다.	

# 장애인식관련추천도서



## <같이 놀자, 루이!>

글 레슬리 일리, 그림 폴리 던바, 한울림스페셜

“같이 놀자, 루이!”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모두가 행복한 통합교실 아이들 이야기



## <귀 없는 그레요>

글 스테판 세르방, 그림 시모네 레아, 한울림스페셜

코도, 귀도, 꼬리도 없는 남다른 토끼 그레요의 남다른 이야기

## 장애이해 낱말퀴즈 : 4~6학년용

( )학년 1반 이름 ( )

1			2		3				
4									
		6							
		7							
						9	10		
5									
			8						

### 가 로 열 쇠

- 장애인의 이동과 생활이 편리하도록 만든 시설을 가리키는 말.
- 사람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인간답게 살 권리.
- 요술000, 우리 할아버지도 있었어요. “시각장애인들이 흰 000을 갖고 다니지요.”
- 휠체어나, 노인, 보행이 어려운 분들이 계단을 이용하지 않고 다닐 수 있도록 경사를 주어 설계한 통로를 뜻함.
- 청각장애인들이 몸짓이나 손짓으로 표현하는 의사 전달 방법
- 소리가 잘 들리도록 귓바퀴에 걸거나 귀속에 넣어 사용하는 기구 (청각장애인이 사용하는 기구)

### 세 로 열 쇠

-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해 차별 받지 않도록 보장하고 있는 법.
- 공정하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친 사고나 견해. “장애는 무조건 불행하거나 불편하다는 00을 갖지 말아야겠지요.”
- 선천적이거나 후천적인 요인으로 시각에 이상이 생겨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 시력이 나쁜 사람들은 콘택트렌즈나 00을 써요.
- 여름철에 먹는 시원한 과일. “커다란 00 하나 잘 먹었나 통통통~”
- 선천적이거나 후천적인 요인으로 청각에 이상이 생겨 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

♥각 학년에 해당하는 부분을 오려서  
4월 23일(금)까지 4학년 교실에 제출하세요♥